

손흥민이 돌아왔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홉스퍼 손흥민이 29일 프레스턴의 딥데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챔피언십(2부리그) 프레스턴 노스 엔드와의 2022-2023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32강전 원정 경기에서 득점한 후 세레머니하고 있다. 이날 멀티 골을 터뜨린 손흥민에 힘입은 토트넘은 3-0으로 프레스턴을 꺾고 FA컵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FA컵 프레스턴전 멀티골, 토트넘 3-0 승리·16강 이끌어 ... 시즌 7·8호골 부진도 씻어

손흥민이 멀티골을 폭발하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홉스퍼의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16강 안착을 이끌었다.

손흥민은 29일 열린 챔피언십(2부리그) 프레스턴 노스 엔드와 2022-2023 FA컵 32강전 원정 경기에서 후반 5분과 후반 24분 시즌 7·8호 골을 터뜨리며 16강 진출에 앞장섰다.

토트넘은 여기에 손흥민과 2선 경쟁을 펼치는 '신입생' 공격수 아르나우트 단주마의 썰기 끝까지 더해 3-0 완승을 거뒀다.

'단짜' 공격수 해리 케인이 결장한 가운데 선발로 출전해 85분을 소화한 손흥민은 지난 5일 크리스털 팰리스와 EPL 19라운드 원정 경기 이후 5경기 만에 골 맛을 봤다. 일수로는 25일 만이다.

한 경기에 두 골 이상을 퍼부은 건 지난해 10월 13일 펼쳐진 프랑크푸르트(독일)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D조 4차전 홈 경기 이후 108일 만이다.

이로써 손흥민은 올 시즌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공식전에서 총 8골 3도움을 기록하게 됐다.

이 경기 전까지 손흥민은 리그에서 4골 3도움, UCL에서 2골을 올렸다.

더불어 지난 24일 풀럼과 21라운드 원정에서 도움을 1개 따낸 손흥민은 공식전 2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도 기록했다.

전반 16분 페널티아크 오른쪽에서 전매특허인 왼발 감아차기를 선보인 손흥민은 9분 후에는 페널티아크 왼쪽에서 반대편 골대를 향한 오른발 감아차기 슈팅으로 예열했다.

후반 5분 페널티아크 왼쪽 뒤편에서 또 한 번 왼

발로 감아친 손흥민은 이번에는 골망을 흔들었다.

후반 14분 손흥민은 페널티박스로 침투하면서 두 번째 골도 걸어냈다.

페널티아크 안쪽으로 뛰어든 손흥민은 이번 페리시치의 원터치 패스를 받아 한 바퀴 돌면서 수비수를 따돌린 후,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멀티 골을 완성했다.

후반 40분 골잡이로서 임무를 완수한 손흥민은 브리안 힐과 교체되면서 그라운드를 떠났다.

이 경기에서 최근 비야레알(스페인)에서 임대

이적을 통해 토트넘에 합류한 단주마도 데뷔전을 치렀다.

후반 2-0으로 앞선 후반 16분 라이언 세세넝과 교체 투입된 단주마는 후반 42분 데뷔골을 터뜨리며 눈도장을 찍었다.

데얀 톨루세브스키가 오른 측면에서 내준 패스가 문전으로 쇄도했던 단주마에게 정확히 연결됐고, 단주마가 방향을 돌려놔 썰기 골을 만들었다.

토트넘은 직전 풀럼과 21라운드 경기(1-0 승)에 이어 컵대회에서도 완승하며 반등 계기를 잡았다.

FA컵에서 최근 3시즌 연속으로 16강에서 탈락한 토트넘은 1990-1991시즌 이후 32년 만의 우승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이의리 역대 연봉 ... KIA 타이거즈 연봉 협상 마무리

재계약 대상자 중 28명 인상

2월 1일부터 미국 애리조나 캠프

KIA 타이거즈가 연봉 협상을 마무리했다. '차세대 에이스' 이의리가 데뷔 3년 차에 역대 연봉자에 이름을 올리는 등 재계약 대상자 45명 중 28명이 인상된 연봉에 도장을 찍었다.

KIA는 29일 2023시즌 연봉 재계약 대상자 45명과 계약을 끝냈다. 연봉 인상자는 28명이고, 동결 10명, 삭감 7명이다.

좌완 선발 이의리가 9000만원에서 66.7% 오른 1억5000만원에 재계약을 하면서 역대 연봉자 대열에 합류했다.

이의리는 프로 두 번째 시즌이었던 지난해 29경기나와 154이닝을 소화하면서 3.86의 평균자책점으로 처음 10승 고지에 올랐다.

'마무리' 정해영은 1억7000만원에서 35.3% 오른 2억3000만원에 연봉 도장을 찍었다. 이번 계약으로 고졸 4년 차 정해영은 비 FA 재계약 대상자(외국인 선수 제외) 중 최고 연봉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해영은 지난해 3.38의 평균자책점으로 32개의 세이브를 더해 통산 67세이브를 올리는 등 KBO 최연소 세이브 기록들을 갈아치우고 있다.

최고 인상률은 좌완 이준영이 장식했다. 이준영은 확실한 좌완 믿음만으로 지난해 75경기나와 2.91의 평균자책점으로 1승 1패 1세이브 17홀드



이의리

를 기록, 5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연봉이 수직 상승했다. 인상은 109%로 팀 내 최고다.

최대 인상액은 FA제의 연봉 고과 1위를 장식한 내야수 박찬호가 기록했다. '도루왕' 박찬호는 1억2000만원에서 8000만원(66.7%) 오른 2억원에 재계약을 했다. 팀 내 최대 인상액이다.

지난해 입단 후 가장 많은 129경기를 소화한 황대인은 6500만원에서 100% 오른 1억3000만원에 재계약했다.

외야수 이창진은 7000만원에서 100% 오른 1억4000만원에 사인하면서 이준영, 황대인과 처음 역대 연봉을 받게 됐다.

프로에서 첫 시즌을 보낸 내야수 김도영은 3000만원에서 2000만원(66.7%) 오른 5000만원에 연봉 계약을 끝냈다.

연봉 계약을 마무리한 KIA는 30일 2023시즌을 위한 본격적인 여정에 나선다.

3년 만에 해외 스프링캠프가 재개되면서 KIA는 2월 1일부터 23일(이하 현지시간)까지 미국 애리조나 투싼 키노 스포츠 콤플렉스에 캠프를 차린다. 이어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일본 오키나와에서 2차 스프링캠프를 진행하면서 2023시즌을 위한 담금질을 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임성재, PGA 파머스 인슈어런스 4위

이번 시즌 최고 성적

맥스 호마 13언더파로 우승

임성재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총상금 870만 달러)에서 공동 4위에 오르며 2022-2023시즌 최고 성적을 거뒀다.

임성재는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토리파인스 골프클럽 남코스(파72·7765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2개를 묶어 2언더파 70타를 쳤다.

최종합계 9언더파 279타를 기록한 임성재는 샘 라이더, 사히스 티갈라(이상 미국)와 공동 4위로 대회를 마쳤다. 우승자인 맥스 호마(미국·13언더파 275타)와는 4타 차다.

공동 4위는 임성재가 이번 2022-2023시즌 PGA 투어 대회에서 거둔 가장 좋은 성적이다.

임성재는 지난해 10월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 7위 이후 톱10 성적이 없었다.

올해 들어서는 샌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공동 13위, 소니오픈 톱 탈락,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공동 18위로 기록을 다소 기록을 보이다가 이번 대회에서 시즌 최고 순위를 달성했다.

3라운드까지 7언더파 209타로 공동 4위였던 임성재는 이날 최종 라운드에서 초반 파를 지키다가 5번 홀(파4) 보기를 써냈지만, 7번(파4)과 9번(파5) 홀에서 버디를 날리며 전반에 한 타를 줄였다.

후반 들어 10번 홀(파4) 보기와 11번 홀(파3) 버디를 맞바꿔 타수를 더 줄이지 못하던 그는 14번 홀(파4)에서 7m 넘는 버디 퍼트를 떨어뜨려 선두권까지 남았다. 이후 추가 버디 기회는 놓쳤으나 임성재는 '톱5'를 지켜내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호마는 지난해 9월 포티넷 챔피언십 이후 4개월 만에 승수를 추가하며 PGA 투어 통산 6승을 수확했다. 우승 상금은 156만6000달러(약 19억3000만원)다.

키건 브래들리(미국)는 두 타 차 2위(11언더파 277타)에 올랐고, 콜린 모리카와(미국)가 3위



임성재

(10언더파 278타)로 마쳤다. 앞선 사흘 선두를 지켰던 라이더는 PGA 투어 첫 우승 기회를 살리지 못한 채 공동 4위에 만족해야 했다.

올해에만 세 번째 우승을 노린 세계랭킹 3위 윤람(스페인)은 두 타를 잃고 공동 7위(8언더파 280타)로 밀렸다.

김성현은 공동 20위(2언더파 286타), 김시우는 공동 25위(1언더파 287타)에 자리했다. 노승열은 공동 44위(2오버파 290타)로 마쳤고, 안병훈은 이날만 11타를 잃어 공동 62위(6오버파 294타)로 미끄러졌다. /연합뉴스

전남드래곤즈, 인니 축구대표 아스나위 영입

전남드래곤즈가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 아스나위(사진)를 영입했다.

구단 최초의 동남아시아(ASEAN)쿼터인 아스나위는 174cm 75kg의 다부진 체격으로 왕성한 활동량과 빠른 스피드를 갖춘 측면 수비수로 안산 그리너스에서 2시즌을 보내면서 20경기 출전, 2득점, 3도움을 기록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 소속이기도 한 아스나위는 기술은 물론 강한 체력

과 근성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다.

전남은 아스나위의 빠른 공수 전환 움직임과 기술력이 이장관 감독의 전술에 잘 녹아들 것으로 기대감을 보였다.

아스나위는 "지금 컨디션이 매우 좋다"면서 "승리의 가능성이 있는 전남에 합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전남은 한국축구에서 깊은 역사를 가진 구단으로 알고 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아스나위

이장관 감독은 "아스나위가 합류해 기쁘다. 스피드도 좋고 기술력도 갖춘 선수다. 전남에 맞는 축구를 구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팀에 잘 적응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메디컬 테스트를 완료한 아스나위는 전남 전지훈련 캠프가 꾸려진 창원 동계훈련장으로 합류, 2023시즌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